

아동의 기질과品行문제 간 관계: 부부갈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 윤 지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 CU)과 탈억제 기질이 이후 아동의品行문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 부부갈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2차, 5차 및 8차년도에 응답한 174가구였다. 부모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아동의 CU특질(아동 연령 4세), 탈억제 기질(14개월),品行문제(7세), 부부갈등(14개월, 4세)에 대해 응답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品行문제에 대한 CU특질과 부부갈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CU특질과 부부갈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CU특질 수준이 높을수록品行문제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관계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 때에만 나타났다. 한편品行문제에 대한 탈억제의 주효과 및 부부갈등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品行문제의 발달 경로를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에 개인 내, 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냉담-무정서, 탈억제 기질,品行문제, 부부갈등

[†] 교신저자 : 장혜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품행문제는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타인의 권리나 주요 사회적 기준을 침해하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Frick, Ray, Thornton, & Kahn., 2014). 품행문제는 범죄를 포함한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품행문제는 이후 개인의 정신건강 혹은 법적문제를 야기하거나 교육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과 신체적 건강의 손상을 예측하는 등, 개인 및 사회에 있어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Frick et al., 2014; Kimonis & Frick, 2011). 특히 청소년기부터 품행문제를 보이기 시작하는 후기발병형에 비해 아동기부터 문제행동을 보이는 조기발병 품행문제의 경우, 행동문제나 품행장애의 경과가 더 좋지 않고, 병리와 문제의 심각도 및 만성도가 더 높으며, 문제 행동이 더 오래 지속되어 성인기에도 범죄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merican Psychiatry Association, 2013; Frick, 2009). 또한 성인기에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성격특질인 정신병질의 경우, 발달 초기부터 품행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Frick et al., 2014), 보다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는 품행문제에 대한 예측은 이후 보다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으로의 발달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성인기 정신병질의 정서적 혹은 행동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치료는 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그 효과성이 매우 낮다(McMahon, Witkiewitz, Kitter,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10; Reidy, Kearns, De Gues, Lilienfeld, Massetti, & Kiehl, 2015; Roose, Bijttebier, Van der Oord, Claes, & Lilienfeld, 2013).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품행

문제를 예측하는 동시에 정신병질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발달적으로 이른 시기에 품행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기질(temperament)이란 아동기 초기부터 드러나는 행동적 양식의 차이로, 자극에 대한 정서, 운동, 주의 반응성 및 행동과 주의에 대한 자기조절 양식의 개인차로 정의된다(Sanson, Hempill, & Smart, 2004). 아동기에 확인된 여러 기질적 특성은 이후의 내재화 혹은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Frick & Morris, 2004). 특히 성인기 정신병질 특성이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발달할 수 있다는 이중경로 모형에 따르면(Fowles & Dindo, 2009),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 CU)과 탈억제(disinhibition) 기질은 각각 정신병질의 정서 및 대인관계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으로의 발달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CU특질과 탈억제 기질은 서로 높은 상관을 지니지만, 신경 활성화, 생리적 반응, 행동 경향성 등에서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Fowles & Dindo, 2009; Walters, 2008). 예를 들어, CU특질은 편도체(amygdala)의 결함으로 인해 처벌 자극이나 다른 사람의 공포 표정에 대해 기저선보다 감소된 신경생리학적 반응과 관련된 반면, 탈억제 기질은 전전두엽 피질(prefrontal cortex)의 결함으로 인해 공포 자극에 대하여 신경생리학적 반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저선 수준의 반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Fowles & Dindo, 2009). CU특질과 탈억제 기질은 사회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기의 품행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Sadeh & Verona, 2012; Walters, 2009), 두 기질 모두 청소년 시기를 지나(Lynam, Charnigo, Moffitt,

Raine, Loeber, & Stouthamer-Loeber, 2009) 성인기 까지도(e.g. Putnam, Gartstein, & Rothbart, 2006)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U특질은 공감과 죄책감의 결여, 주요 과제에 대한 책임감의 부족, 얕거나 결여된 피상적 정서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기질적 특성이다. CU특질은 성인기 정신병질의 정서 및 대인관계적 특성이 아동 및 청소년에 적용될 수 있게 확장된 개념으로(Kimonis, Frick, Cauffman, Godweber & Skeem, 2012), 초기 아동기와 같이 매우 이른 시기의 행동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Waller & Hyde, 2017). 또한 CU특질을 지닌 개인은 공포자극에 대한 낮은 자율신경계 활성화 및 행동적 반응성을 보이는 등,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행동학적으로 고유한 특징을 지니는 기질로 볼 수 있다(Frick & Morris, 2004). CU특질을 보이는 아동은 발달 초기부터 전반적인 공격성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반응적 공격성과 도구적 공격성 모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Frick & Viding, 2009). 또한 초기 아동기의 CU특질의 행동적 발현인 CU행동은 중기 및 후기 아동기의 공격성과 규칙위반 행동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한다(Song, Waller, Hyde, & Olson, 2016; Waller, Dishion, Shaw, Gardner, Wilson, & Hyde, 2016). 한편, 가장 최근 개정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品行장애의 진단기준 중 CU특질을 지닌 개인을 명시하기 위해 ‘제한된 친사회적 정서(limited prosocial emotion, LPE)’라는 명시자를 포함하였는데, LPE를 지닌品行장애 아동은 LPE가 없는 아동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였다(McMahon et al., 2010). CU특질은 아동기뿐 아

니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도 한다(김수진, 전세진, 김현경, 이주영, 2017). 이처럼 공격성부터 반사회적 행동까지 다양한 수준의 문제행동에 대한 CU의 예측력은 일관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CU특질과品行문제 간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가 보고된 바 있다(Longman, Hawes, & Kohlhoff, 2015).

탈억제(disinhibition) 기질은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에서 그 정의가 매우 다양하며,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Watson과 Clark(1993)는 성격3요인 중 탈억제를 통제가 되지 않거나(undercontrol) 과도하게 통제하는(overcontrol)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성에 대한 개인차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Nigg(2000)는 성격3요인의 탈억제가 억제와 통제 개념뿐 아니라 적대감(hostility)이라는 정서적 특성을 포함하며, 통제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서조절이 신경증(neuroticism)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Rothbart와 그 동료들은 의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라는 상위 차원의 기질을 제안하였다(e.g. Rothbart & Ahadi, 1994). 의도적 통제는 지배적인(dominant) 반응을 억제하고, 그에 버금가는 반응을 활성화하고, 계획하며, 오류를 탐지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실행 주의(executive attention)의 효율성으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1998). 의도적 통제의 정의는 주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인지 및 행동적 통제 등을 모두 관장하는 포괄적인 자기조절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Nigg, 2000), 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격3요인의 탈억제와 성격5요인의 성실성(conscientiousness) 등의 성격 특성으로도 발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ellegen, 1985; Watson & Clark, 1993). 정신병질과 관련된 탈억제는 전반적인 자기조절 능력의 결함을 의미하므로(Fowles & Dindo, 2009), 본 연구에서는 탈억제를 의도적 통제 기질의 결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Deater-Deckard, 2014; Gorin, 2016).

탈억제 기질은 성인기 정신병질의 반사회성 및 일탈적 생활방식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Frick & Morris, 2004). 탈억제 기질을 지닌 개인은 사회적 능력, 내재화 문제, 주관적 삶의 질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부적응적 양상을 보이며, 이는 전 연령대에서 장기적으로 나타난다(DeLisi & Vaughn, 2014). 또한, 탈억제 기질은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발달단계에 걸쳐 문제 행동을 예측한다(Rothbart, 2007). 예를 들어, 영아의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 즉 높은 탈억제 특성은 아동 초기의 외현화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김연수, 박금주, 2016), 아동의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은 반응적 공격성 혹은 전반적인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희순, 이승연, 2013; Diaz et al., 2017).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탈억제 특성 역시 학급 분위기가 부정적일 때 더 심각한 수준의 비행문제로 이어졌다(Bao, Li, Zhang, & Wang, 2015). 한편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이들은 낮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 기질, 즉 높은 탈억제 기질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Keiley, Lofthouse, Bates, Dodge, & Pettit, 2003).

그런데 CU특질 및 탈억제 기질은 사회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품행문제를 예측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e.g. Frick et al., 2014; Ullsperger, Nigg, & Nikolas, 2016). 예를 들어 CU특질과 품행문제 간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분석에 포함된 10개 연구의 평균 효과크기가 전체적으로 이질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요인 간 관계에 있어 조절변인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Longman et al., 2015). Longman 등은 분석 과정에서 정보원(informant)의 차이를 조절변인으로 고려하였지만, CU특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또래 영향(e.g. Walters, 2017)이나 부모의 영향(e.g. Waller, Gardner, & Hyde, 2013) 등을 살펴보는 않았다. 또한 탈억제 기질은 권위적 혹은 독재적 양육과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알코올 사용을 예측하였으며(Burk et al., 2011; Armstrong, Ruttle, Burk, Costanzo, Strauman, & Essex, 2013), 어머니의 부정적 통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외현화 문제를 예측하기도 하였다(Van Aken, Junger, Verhoeven, Van Aken, & Dekovic, 2007).

개인의 기질이 이후 적응을 예측하는 경로에 관여하는 개인 외적 요인과 관련해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낮은 체벌, 낮은 또래비행 등의 환경적 요인은 아동의 기질적 위험요인이 적응문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Lynam, Loeber, & Stouthamer-Loeber, 2008). 그에 반해 양육이나 부부갈등과 같은 가족환경은 기질적 위험요인이 있는 아동의 미래 문제행동을 강하게 예측하는 것은 물론, 기질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idy et al., 2015). 그 중 부부갈등은 자녀의 품행문제를 횡단, 종단적으로 예측한다는 점이 매우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박진희, 박지선, 2017; 윤혜미, 최문정, 2006; Kaczynski, Lindahl, Malik, & Laurenceau, 2006). 예를 들어, 적대적 공동양육이나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심각한 행동 문제를 보이

며, 사회정서적 적응 수준이 낮았다(Kiss et al., 2014). 또한 어머니가 보고한 결혼생활 스트레스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는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e, Olson, & Sameroff, 2013). 이러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적응 간 관계를 설명하는 네 가지 관점이 있다(Zimmer & Jacob, 2002). 먼저 유출가설(spillover hypothesis, Cox, Paley, & Harter, 2001; Erel & Burman, 1995)에 따르면, 부부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정서나 기분이 부모-자녀 관계에 전이되어 양육행동이나 양육 스트레스로 발현될 수 있다(Camisasca, Miragoli, & Blasio, 2016). 두 번째는 사회적 학습 이론으로(Bandura, 1973), 발달 초기부터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은 부모의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모델링하게 되며, 이러한 학습 과정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 Grych와 Fincham(1990)의 인지-맥락 이론(cognitive-contextual framework)에서는 아동이 부부갈등에 반응하는 인지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이 부부갈등을 알아차리고 부모의 갈등에 대한 정서적 평가와 반응을 유발하는 1차적 과정과, 부부갈등에 대한 인지적 귀인을 유발하는 2차적 단계를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Cummings와 Davis(1994)의 정서적 안정성 이론은 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부부갈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안정성이 아동의 적응 혹은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이 중 특히 인지-맥락 이론과 정서적 안정성 이론은 아동의 기질에 따라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반응 강도나 대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

안에 따라 아동의 기질과 부부갈등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존재하며, 그 결과 또한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e.g., Easterbrook et al., 1994; Schudlich, White, Fleischhauer, & Fitzgerald, 2011), 이들 연구는 대부분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부부갈등을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이에 대해 덜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Frick과 Morris(2004)는 까다로운 기질이 기질의 반응성과 조절 측면의 여러 차원이 통합된 것으로(Rothbart & Ahadi, 1994), 특정한 기질 차원, 혹은 차원들의 결합이 아동의 적응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品行문제에 대한 정신병질과 관련된 두 가지 기질, 즉 CU특질 및 탈억제 기질과 부부갈등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Kauten과 그 동료들(2015)은 지역사회에서 표집한 15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부갈등 혹은 부모-자녀 갈등 수준에 따라 CU특질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 때에는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CU특질이 역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지만,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 때에는 CU특질과 공격성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만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을 포함한 전반적인品行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한편品行문제에 대한 탈억제 기질과 부부갈등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이 아동의 기질 혹은 부부갈등과品行문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정신병질과 관련된 두 가지 기질과 부부갈등의 상호작용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기질을 측정하였는데, 기질이 생애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품행문제에 대한 개입은 이른 시기에 이루어질수록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이른 발달 시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의 기질적, 환경적 요인이 품행문제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품행문제는 아동기의 주요한 발달 전환기 중 하나인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며(Molien, Shaw, & Maxwell, 2010), 이 때 품행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이후 발달단계에서도 그 어려움이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품행문제를 예측하는 작업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Cole, Teti, & Zahn-Waxler, 2003; Frick, Stickle, Dandreaux, Farrell, & Kimonis, 2005; Frick & Loney, 1999).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문제행동을 포함하는 외현화 증상이나 그 주요한 하위요인인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품행문제는 공격성과 더불어 무단결석, 절도, 사기 등 반항적이고 사회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규칙위반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외현화 증상은 주의집중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품행문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공격성만으로는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규칙위반 특성을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품행문제와 관련하여 공격성과 규칙위반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아동기에 측정된 CU특질과 탈억제 기질, 그리고 부부갈등이

각각 아동이 7세일 때의 품행문제를 예측하는지, 그리고 기질이 품행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갈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CU특질은 이후 아동의 품행문제를 예측할 것이다.
2. 아동의 탈억제 기질은 이후 아동의 품행문제를 예측할 것이다.
3. 부부갈등은 이후 아동의 품행문제를 예측할 것이다.
4. 부부갈등 수준에 따라 아동의 기질이 품행문제를 예측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 4.1.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 때에 비해,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 때 아동의 CU특질은 이후 품행문제를 더 크게 예측할 것이다.
 - 4.2.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 때에 비해,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 때 아동의 탈억제 기질은 이후 품행문제를 더 크게 예측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에서 진행하는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2차년도(2009) 심층조사 및 5차년도(2012)와 8차년도(2015) 조사에 참여하고 누락된 정보가 없는 174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가구의 자녀의 성별은 남아 89명(51%), 여아 85명(49%)이었다. 각 조사 시점에 아동의 평균 나이는 2차년도 13.89개월($SD=.955$), 5차년도 4.23세($SD=.106$), 8차년도

7.31(SD=.119)세였다.

분석에 포함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중앙값은 2차년도에 350만원, 5차년도에 400만원, 8차년도에 485만원이었다.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6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 졸업(31.1%), 고등학교 졸업(14.1%)이 그 뒤를 이었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80명(4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고등학교 졸업(19.8%), 전문대 졸업(16.4%)이 이었다.

측정도구

CU특질

아동의 CU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PSKC 5차년도(아동 연령 4세)에 조사한 유아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1.5-5, 오경자, 김영아, 2009; Achenbach, 1991)를 사용하였다. CBCL 1.5-5는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CBCL 1.5-5는 '정서적 반응성, 불안/우울, 신체증상, 위축의 4가지 내재화 문제와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의 2가지 외현화 문제, 그리고 수면문제와 기타문제로 총 8개 하위영역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BCL 1.5-5 중 CU특질을 반영한다고 선행문헌에서 밝혀진 5개 문항(Willoughby, Waschbusch, Moore, & Propper, 2011)을 사용하였다. 5개 문항은 '잘못된 행동을 한 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정서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 '처벌을 통해 행동이 변화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를 보이지 않는다'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3점 리커트 척도(0 :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 2 :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CU특질을 측정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448$ 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Willoughby 등(2014)의 연구의 내적 일치도가 .55, Song 등(2016)의 연구의 내적 일치도가 .55 ~ .99로 나타나는 등, 이는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일관적인 결과이다.

탈억제 기질

아동의 탈억제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PSKC 2차년도(아동 14개월)에 진행된 심층조사의 일부인 유아기 행동 척도(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ECBQ; Putnam et al., 2006)를 김영아, 박진아, 박규리가 번안한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수집되었다. ECBQ는 총 201문항, 1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8점(0 : 해당없음 ~ 7 : 항상) 리커트식 척도이다. 낮은 의도적 통제 기질은 높은 탈억제 기질을 반영하므로(Gorin, 2016), 본 연구에서는 탈억제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주의집중(attentional focus) 12문항, 주의 전환(attentional shifting) 12문항, 억제통제(inhibitory control) 12문항의 역변환 점수를 더하여 통합 점수를 구성하였다(Eisenberg, Taylor, Widaman, & Spinrad, 2015). 본 연구에서는 통합 점수가 높을수록 탈억제 기질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Cronbach's $\alpha=.772$).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PSKC 2차년도(아동 14개월)와 5차년도(4세)에 진행한 부부갈등척도 7문항을 사용하였다(정현숙, 2004; Markman, Stanley, & Blumberg, 1994; 200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부갈등 척도는 Markman 등이 '결혼문제예방 및 결혼생활향상 프로그램'(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을 위하여 개발한 도구로, 원 척도에

서는 ‘예/아니오’로 응답하였지만, PSKC에서는 질문지의 일관성을 위해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2차년도와 5차년도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고한 부부갈등 간 상관 이 보통 수준 이상이었으며(2차년도 $r=.593$, $p<.01$, 5차년도 $r=.524$, $p<.01$), 2차년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평균 점수와 5차년도의 평균 점수 간 상관 역시 보통 수준 이상이었으므로($r=.606$, $p<.01$),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2차년도 보고 및 5차년도 보고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부부갈등을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994$).

품행문제

아동의 품행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PSKC 8차년도(아동 연령 7세)에 진행된 CBCL 6-18(오경자, 김영아, 2009; Achenbach, 1991)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CBCL 6-18은 내재화 문제 척도 4개(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와 외현화 문제 척도 4개(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의 증후군 척도 8개와 기타 척도 1개, 총 9개 척도로 구성된 120문항의 어머니 보고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3점 리커트 척도(0 :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 2 :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따라(e.g. Hyde, Shaw, & Molianen, 2010; Waller, Wright et al., 2015) 아동의 품행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규칙위반 17문항과 공격행동 18문항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다(Cronbach's $\alpha=.742$). 본 연구의 피험 아동 중 T점수를 통해 확인한 품행문제의 준임상군은 14명이었으며, 임상군은 11명으로 약 15%의 아동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0을 통해 분석되었다. 먼저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α 를 계산하였고, 다음으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중 아동의 성별, 어머니와 아버지의 최종학력, 그리고 가구소득과 주요 변인 간 상관은 명목변수와 연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다연상관분석(polyserial correlation)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주요 변인 간 상관에 대해서는 피어슨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아동의 14개월의 탈억제 기질과 4세의 CU특질이 각각 초기 아동기의 부부갈등과 상호작용하여 7세의 품행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CU특질과 탈억제 기질은 서로 다른 모형으로 총 두 개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첫 단계에는 연구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어머니의 학력을 투입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였고, 2단계에서 아동의 기질과 부부갈등의 주효과를 살펴 보았다. 마지막 3단계에서 기질과 부부갈등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부부갈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상호작용항을 구성한 모든 변인은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를 시행하였다. 품행문제에 대한 기질x부부갈등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할 때에는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시행하여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였다(Aiken, West, & Reno, 1991). 이 때 조절변인인 부부갈등을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나누어 ‘고-부부갈등’ 집단과 ‘저-부부갈등’ 집단에서 각 기질이 품행 문제로 발달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보았다.

결 과

기술 통계치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치와 주요 변인 간 상관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CU특질과 부부갈등($r=.109$, n)을 제외한 모든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CU특질과 탈억제 기질 간 상관이 유의하였으므로($r=.249$, $p<.01$), 이후 분석에서 각각의 기질을 통제하였다. 또한 다연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CU특질($rbo=-.176$, $z=-2.25$), 탈억제($rbo=-.144$, $z=-.183$), 부부갈등($rbo=-.203$, $z=-2.7$) 그리고品行문제($rbo=-.16$, $z=-2.04$) 등 모든 주요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후 분석에서 통제하였다. 한편, CU특질과品行문제는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표 1. 기술통계치 및 상관표

변인	1.	2.	3.	4.
1. 탈억제	1			
2. CU특질	.249**	1		
3. 부부갈등	.188*	.108	1	
4.品行문제	.217**	.307**	.280**	1
평균	3.24	.25	1.97	54.56
(표준편차)	(.53)	(.25)	(.57)	(4.77)

* $p<.05$, ** $p<.01$

져 있지만(e.g., Frick, Cornell, Barry, Bodin, & Dane, 2003),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별은 모든 주요변인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p>.05$).

위계적 회귀분석

品行문제에 대한 CU특질과 부부갈등의 주

표 2. CU특질과 부부갈등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B	SE	β	R^2	ΔR^2
1	(상수)	58.098	2.245			
	‘모’ 최종학력	-.657	.402	-.122	.054	
	탈억제	1.866**	.674	.207		
2	(상수)	56.599	2.162			
	‘모’ 최종학력	-.384	.388	-.071		
	탈억제	1.061	.667	.118	.163	.098**
	CU특질	4.986**	1.427	.257		
3	(상수)	56.368	2.142			
	‘모’ 최종학력	-.358	.384	-.067		
	탈억제	1.150	.661	.128	.186	.023*
	CU특질	4.219**	1.456	.218		
	부부갈등	1.455**	.528	.198		
	CU특질 * 부부갈등	4.966*	2.297	.156		

* $p<.05$, ** $p<.01$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CU특질($\beta=.218, p<.01$)과 부부갈등($\beta=.198, p<.01$)은 각각 품행문제에 대해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다. 즉 4세의 CU특질과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7세의 아동의 품행문제 수준이 높았다. 또한 품행문제에 대한 부부갈등과 CU특질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beta=.156, p<.05$).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그림 1),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 때에는 CU특질이 품행문제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b=7.45, p<.01$), 부부갈등 수준이 낮을 때에는 CU특질과 품행문제 간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b=1.01, ns$).

다음으로 품행문제에 대한 탈억제 기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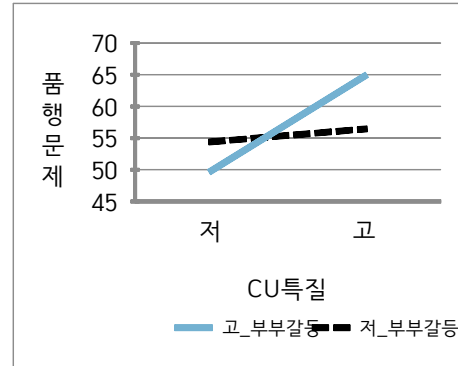


그림 1. 품행문제에 대한 CU특질x부부갈등의 상호작용

부부갈등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부부갈등은 7세

표 3. 탈억제 기질과 부부갈등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B	SE	β	R^2	ΔR^2
1	(상수)	57.462	2.198			
	‘모’ 최종학력	-.540	.394	-.101	.111	
	CU특질	5.847**	1.422	.301		
2	(상수)	55.426	2.210			
	‘모’ 최종학력	-.169	.397	-.032		
	CU특질	5.160**	1.415	.266	.174	.063**
	탈억제 기질	1.102*	.659	.122		
3	(상수)	55.988	2.236			
	‘모’ 최종학력	-.285	.403	-.053		
	CU특질	4.901**	1.422	.3446	.184	.010
	탈억제 기질	1.119	.657	.124		
	부부갈등	1.572**	.569	.204		
	탈억제 기질 * 부부갈등	1.491	1.030	.104		

* $p<.05$, ** $p<.01$

의品行문제에 대하여 유의한 주효과를 지녔으며($\beta=.204, p<.01$), 아동의 탈억제 기질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202, ns$). 한편品行문제에 대한 탈억제 기질과 부부갈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104, ns$).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PSKC)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CU특질 및 탈억제 기질과 부부갈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또 상호작용하여 학교 입학 시점의品行문제를 예측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CU특질과 부부갈등은 독립적으로品行문제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탈억제 기질은 부부갈등과 유의한 관계를 지니지 않았으며, 부부갈등과 기질의 상호작용효과는 CU특질에서만 나타났다. 즉, 아동의 CU특질이 향후品行문제로 이어지는 관계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아동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여러 연구변인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어머니의 학력 수준을 통제한 결과였다.

먼저 아동의 CU특질과 부부갈등의 상호작용은 탈억제 기질을 통제한 후에도 이후의品行문제를 예측하였다. 즉, 부부갈등 수준이 높은 경우 아동의 CU특질은 이후의品行문제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부모의 갈등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부적응적 상호작용을 정상인 것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신념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CU특질이 높은 아동의 경우, 타인의 부정적 정서, 특히 공포와 고통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정서처

리 결함으로 인해 부모의 갈등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모의 공격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더 쉽게 내재화하여(Frick & White, 2008; Kauren et al., 2015), 가정 밖에서 공격행동이나 규칙위반 행동을 보이게 될 수 있다. 반면, 부부갈등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모델링할 수 있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나 태도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아동의 기질, 즉 CU특질이 이후의品行문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결과는 개인 내 취약성과 환경적 위험요인의 조합이 더 부적응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병인소질-스트레스 이론과도 일관된다(Zuckerman, 1999).

반면, 탈억제 기질과 부부갈등이 각각, 그리고 함께 이후의品行문제를 예측하는지 검증한 모형에서는 부부갈등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으며, 탈억제 기질의 주효과와 탈억제 $\times$ 부부갈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탈억제 기질을 지닌 아동은 인지 및 행동조절이 어려워(Putnam et al. 2006), 주위 맥락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격적, 반항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일관적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Roose et al., 2013).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品行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적은 저위험군이며, 표본의 크기 자체가 작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행동문제 임상군과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탈억제 기질과品行문제 간 관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탈억제 기질과 부부갈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환경적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탈억제 특성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탈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은 품

행문제, 혹은 품행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환경적 맥락에 주의를 충분히 할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Eisenberg, Taylor, Widaman, & Spinrad, 2015). 인지-맥락 이론에 따르면, 아동이 부부갈등을 부정적이며 자신에게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해야만 2차 과정을 통해 자기비난이나 비효율적인 대처 전략 등을 보이게 되는데(Grych & Fincham, 1990), 탈억제 기질을 지닌 아동은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민감하지 않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탈억제 기질을 지닌 아동은 적응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차 과정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탈억제 기질과 품행문제 간 관계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이 적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을 탐색한 본 연구와 달리, 자녀가 보고한 부부갈등 수준이 탈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의 품행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부부갈등은 단독적으로 품행문제를 예측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관적인 결과이다. 즉 유출가설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부갈등은 아동의 발달에 있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가정 내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에 대한 반응성 감소, 방임 혹은 체벌, 비일관적 양육 등 부정적 양육행동의 증가 등을 통해 아동의 품행문제나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Cummings & Davis, 2002).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해로운 효과가 이른 시기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던 품행문제와 관련된 부부갈등 문헌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품행문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기제(양

육 등)는 향후 연구문제로 남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아동의 CU특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지역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CU특질의 평균치가 .25로 매우 낮았다. 이는 임상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는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관적인 결과이며(Song et al., 2016; Willoughby et al., 2011; 2015),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표본에서 CU특질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표본은 가구의 소득과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CU특질 수준이 부적인 관계를 지닌다는 점에서(Frick & White, 2008),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CU특질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품행문제 고위험군이나 환자군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질의 발달경로를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자료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 수집된 패널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기질과 부부갈등의 측정시점이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CU특질과 탈억제에서 나타난 품행문제에 대한 경로의 차이가 기질의 특성 때문인지, 연령의 차이 때문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부부갈등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어머니의 자기보고로 수집되었으며,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CU특질을 측정하는 도구가 없어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CBCL을 활용해 CU특질을 구성하였다는 한계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CU특질 척도의 신뢰도가 매우 낮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한계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각 기질 차원이나 부부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두드러지는 시점에서 보다 다양하고 타당한 도구로

자료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변인 간 종단적 관계를 확인했지만, 이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듯이(Beaver et al, 2014), CU특질이나 탈억제 기질의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부갈등이 발생 또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차지연분석과 같이 측정 시기에 따른 변인 간 상호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품행문제의 예측과 예방에 대해 중요한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기질(Rothbart, 2007)에 비해 개입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환경적 요인, 즉 부부갈등이 아동의 기질과 품행문제 간 관계를 일부 결정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품행문제를 예방하는 데 부부갈등이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품행문제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 프로토콜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개입과 아동의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개입이 중심으로(Bakker, Greven, Buitelaar, & Glennon, 2017),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 부부갈등을 다루는 치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부부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부부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모의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양육행동은 물론, 부정적인 상호작용 양상에 대한 아동의 모델링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품행문제 발달과 개입을 위한 기초지식의 외연을 넓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진, 전세진, 김현경, 이주영 (2017).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 역경, 냉담-무정서 특질, 비행 또래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김연수, 박금주 (2016). 영아기 기질의 변화가 아동초기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정서와 조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95-111.
- 박진희, 박지선 (2017).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형제자매관계의 매개과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2), 1-18.
- 오경자, 김영아 (2009). CBCL 1.5-5 매뉴얼 부모용 매뉴얼. 서울: 휴노컨설팅.
- 윤혜미, 최문정 (2006). 어머니 우울과 부부갈등이 방임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7, 21-44.
- 장희순, 이승연 (2013).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3), 19-48.
- 정현숙 (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iken, L. S., West, S. G., & Reno, R. R.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 Armstrong, J. M., Ruttle, P. L., Burk, L. R., Constanzo, P. R., Strauman, T. J., & Essex, M. J. (2013). Early risk factors for alcohol use across high school and its convariation with deviant friend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74(5), 746-756.
- Bakker, M. J., Greven, C. U., Buitelaar, J. K., & Glennon, J. C. (2017). Practitioner review: Psychological treatmen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 problems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8(1), 4-18.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Oxford, England: Prentice-Hall.
- Bao, Z., Li, D., Zhang, W., & Wang, Y. (2015). School climate and delinquency among Chinese adolescents: Analyses of effortful control as a moderator and deviant peer affiliation as a mediat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1), 81-93.
- Beaver, K. M., da Silva Costa, C., Poersch, A. P., Freddi, M. C., Stelmach, M. C., ... , Schwartz, J. A. (2014). Psychopathic personality traits and their influence on parenting quality: Result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mericans. *Psychiatric Quarterly*, 85(4), 497-511.
- Burk, L. R., Armstrong, J. M., Goldsmith, H. H., Klein, M. H., Strauman, T. J., ... , Essex, M. J. (2011). Sex, temperament, and family context: How the interaction of early factors differentially predict adolescent alcohol use and are mediated by proximal adolescent factors. *Psychological Addictive Behavior*, 25(1), 1-15.
- Camisasca, E., Miragoli, S., & Blasio, P. D. (2016). Families with distinct levels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Which role for maternal and paternal stres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3), 733-745.
- Choe, D. E., Olson, S. L., & Sameroff, A. J. (2013). Effects of early maternal distress and parenting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2), 437-453.
- Cole, P. M., Teti, L. O., & Zahn-Waxler, C. (2003). Mutual emotion regulation and the stability of conduct problems between preschool and early school ag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1), 1-18.
- Cox, M., Paley, B., & Harter, K. (2001).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J. H. Grych & F. D. Fincham (Eds.),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249-27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mmings, E. M., & Davis, P. T. (200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1), 31-63.
- Deater-Deckard, K. (2014). Family matters: Intergenerational and interpersonal processes of executive function and attentive behavio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3), 230-236.
- DeLisi, M., & Vaughn, M. G. (2014). Foundation

- for a temperament-based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and criminal justice system involvement.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2, 10-25.
- Diaz, A., Eisenberg, B., Valiente, C., VanSchyndel, S., Spinrad, T., Berger, R., ... Southworth, J. (2017). Rela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expressivity and effortful control to kindergarteners' student-teacher relationship, academic engagement, and externalizing problems at schoo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67, 3-14.
- Du Rocher Schudlich, T. D., White, C. R., Fleischhauer, E. A., & Fitzgerald, K. A. (2011). Observed infant reactions during live interparental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73, 221-235.
- Easterbrook, A. A., Cummings, E. M., & Emde, R. (1994). Young children's response to constructive marital disput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60-169.
- Eisenberg, N., Taylor, Z. E., Widaman, K. F., & Spinrad, T. L. (2015). Externalizing symptoms, effortful control, and intrusive parenting: A test of bidirectional longitudinal relations during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4), 953-968.
- Erel, O., & Burman, B. (1995). Interrelate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1), 108-132.
- Fowles, C., & Dindo, L. (2009). Temperament and psychopathy: A dual-pathway model.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3), 179-183.
- Frick, P. J. (2009). Extending the construct of psychopathy to youth: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diagnosing, and treating antisocial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4, 803-812.
- Frick, P. J., Cornell, A. H., Barry, C. T., Bodin, S. D., & Dane, H. E. (2003). Prediction of conduct problem severity, aggression, and self-report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457-470.
- Frick P. J., & Loney B. R. (1999). Outcom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nd Conduct Disorder. In Quay H. C., & Hogan A. E. (Eds.), *Handbook of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Boston, MA: Springer
- Frick, P. J., & Morris, A. S. (2004).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pathways to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 54-68.
- Frick, P. J., Ray, J. V., Thornton, L. C., & Kahn, R. E. (2014). Can callous- unemotional traits enhance the understanding, diagnosis, and treatment of serious conduct proble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mprehens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 1-57.
- Frick, P. J., Stickle, T. R., Dandreaux, D. M., Farrell, J. M., & Kimonis, E. R. (2005).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predicting the severity and stabil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 471-485.
- Frick, P. J., & Viding, E. (2009). Antisocial behavior from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Development and*

- Psychopathology*, 21, 1111-1131.
- Frick, P. J., & White, S. F. (2008). Research Review: The importance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for developmental models of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116, 508-518.
- Gorin, H. (2016). *The emergence of psychopathic traits: Examining temperament X environment interaction* (Master Thesis). Retrieved from Rosalind Franklin University.
- Grych, J.,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 Hyde, L. W., Shaw, D. S., & Molianen, K. L. (2010). Developmental precursors of moral disengagement and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2), 197-209.
- Kaczynski, K. J., Lindahl, K. M., Malik, M., & Laurenceau, J. P. (2006). Marital conflict,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A test of mediation and moder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2), 199-208.
- Kauten, R. L., Lui, J. H., L., Doucette, H., & Barry, C. T. (2015). Perceived family conflict moderates the relations of adolescent narcissism and CU traits with aggress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0), 2914-2922.
- Keiley, M. K., Lofthouse, N., Bates, J., Dodge, K. A., & Pettit, G. S. (2003). Differential risks of covarying and pure components in mother and teacher reports of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across ages 5 to 14.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267-283.
- Kimonis, E. R., & Frick, P. J. (2011). Etiology of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nd conduct disorder: Biologic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dentified in the development of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In: R. C. Murrihy, A. D. Kidman, & T. H. Ollendic (Eds.), *Handbook of clinical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onduct problems in youth* (pp.49-76). New York: Springer.
- Kimonis, E. R., Frick, P. J., Cauffman, E., Goldweber, A., & Skeem, J. (2012). Primary and secondary variants of juvenile psychopathy differ in emotional process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 1091-1103.
- Kiss, M., Feche, G., Pop, M., & Susa, G. (2014). Early childhood self-regulation in context: Parental and familial environmental influences. *Cognition Brain, Behavior.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18, 55-85.
- Loney, B. R., Frick, P. J., Clements, C. B., Ellis, M. L., & Kerlin, K.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impulsivity, and emotional processing in adolescents with antisocial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2, 66-80.
- Longman, T., Hawes, D., & Kohlhoff, J. (2015). Callous-unemotional traits as markers for conduct problem severity in early childhood: A meta-analysi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7, 326-334.
- Lynam, D., Charnigo, R., Moffitt, T. E., Raine,

- A.,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2009). The stability of psychopathy across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4), 1133-1153.
- Lynam, D. R.,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2008). The stability of psychopathy from adolescence into adulthood: The search for moderators. *Criminal Justice & Behavior*, 35(2), 228-243.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cMahon, R. J., Witkiewitz, K., Kitter, J. S.,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10). Predictive validit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measured in early adolescence with respect to multiple antisocial outcomes. *Th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9(4), 752-763.
- Moilanen, K. L., Shaw, D. S., & Maxwell, K. L. (2010). Developmental cascade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cademic competence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 635-653.
- Nigg, J. T. (2000). On inhibition/disinhibition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iews from cognitive and personality psychology and a working inhibition taxonomy. *Psychological Bulletin*, 126, 220-246.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 386-401.
- Reidy, D. E., Kearns, M. C., De Gue, S., Lilienfeld, S. O., Massetti, G., & Kiehl, K. A. (2015). Why psychopathy matters: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and violence preven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4, 214-225.
- Roose, A., Bijttebier, P., Van der Oord, Claes, & Lilienfeld, S. O. (2013). Psychopathic traits in youth and associations with temperamental features: Results from a performance-based measure.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4(1), 1-7.
- Rothbart, M. K. (2007).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ersonal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Thousand Oaks*, 16(4), 207-212.
- Rothbart, M. K., & Ahadi, S. A. (1994).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5-66.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105-176). New York: Wiley.
- Sadeh, N., & Verona, E. (2012). Visual complexity attenuates emotional processing in psychopathy: Implications for fear-oriented startle deficits. *Cognitive Affective Behavioral Neuroscience*, 12, 346-360.
-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 142-170.
- Song, J., Waller, R., Hyde, L. W., & Olson, S. L. (2016). Early callous-unemotional behavior, theory-of-mind, and a fearful/inhibited temperament predict externalizing problems in middle and late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6), 1205-1215.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Maser (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pp. 681-706). Hillsdale, NJ: Erlbaum.
- Ullsperger, J. M., Nigg, J. T., & Nikolas, M. A. (2016). Does child temperament play a role i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1), 167-178.
- Van Aken, C., Junger, M., Verhoeven, M., Van Aken, M. A. G., & Deković, M. (2007). The interactive effects of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on toddlers' externalizing behaviour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 553-572.
- Waller, R., Dishion, T. J., Shaw, D. S., Gardner, T. J., Wilson, M. N., & Hyde, L. W. (2016). Does early childhood callous-unemotional behavior uniquely predict behavior problems or callous-unemotional behavior in lat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52, 1805.
- Waller, R., Gardner, F., & Hyde, L. W. (2013). What are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ing,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A systematic review of eviden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 593-608.
- Waller, R., & Hyde, L. W. (2017). Callous-unemotion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Measurement, meaning, and the influence of parenting. *Childhood Development Perspectives*, 11(2), 120-126.
- Waller, R., Wright, A. G. C., Shaw, D. S., Gardner, F., Dishion, T. J., Wilson, M. N., & Hyde, L. W. (2015). Factor structure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parent-reported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mong high-risk 9-year-olds. *Assessment*, 22, 561-580.
- Walters, G. D. (2008). Self-report measures of psychopathy, antisocial personality, and criminal lifestyle: Testing and validating a two-dimensional model.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5, 1459-1483.
- Walters, G. D. (2009). The psychological inventory of criminal thinking styles and Psychopathy Checklist: Screening Version as incrementally valid predictors of recidivism. *Law and Human Behavior*, 33(6), 497-505.
- Walters, G. D. (2018).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moral disengagement as antecedents to the peer influence effect: moderation or mediation?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41, 259-275.
- Watson, D., & Clark, L. A. (1993). Behavioral disinhibition versus constraint: A dispositional perspective. In D. M. Wegner & J. W. Pennebaker (Eds.), *Handbook of mental control*

- (pp. 506-527). New York: Prentice Hall.
- Willoughby, M. T., Mills-Koonce, W. R., Waschbusch, D. A., Gottfredson, N. C., & Family Life Project Investigators. An examination of the parent report version of th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a community sample of first-grade children. *Assessment*, 22, 76-85.
- Willoughby, M. T., Waschbusch, D. A., Moore, G. A., & Propper, C. B. (2011). Using the ASEBA to screen for callous unemotional traits in early childhood: Factor structure, temporal stability, and utilit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 Assessment*, 33, 19-30.
- Zimmer, D. M., & Jacob, T. (2001). Influence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 adjustment: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 319-335.
- Zuckerman, M. (1999).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A biosocial model*.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1차원고접수 : 2018. 09. 13.
수정원고접수 : 2018. 11. 21.
최종게재결정 : 2018. 12. 03.

The Relationship of Child Temperament and Conduct Problem: The Moderation of Marital Conflict

YoonJi Park

Hyein Chang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s marital conflict as a moderator of relationships between early early child callous-unemotional (CU) traits, disinhibition temperaments, and conduct problems at the transition-to-school-age. Data from waves 2, 5, and 8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were analyzed. Parents provided ratings of a child's CU at four years of age, disinhibition at 14 months, marital conflict at 14 months and four years, and child conduct problems at seven years.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showed that CU and marital conflict had significant main effects on future conduct problems. In addition,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U and marital conflic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uch that the associations between CU and conduct problems were larger for children whose parents reported high levels of marital conflict. On the other hand, main effects of disinhibition and interaction effect between disinhibition and marital conflict on conduct problems were not significant. Results are discussed with respect to both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in developmental pathways to conduct problems.

Key words : Callous-Unemotional Trait, Disinhibition, Marital Conflict, Conduct Problem